

나의 해군 군의관 시절을 회상하며

주광국 (68 년)

지금 돌이켜 보면 반 세기도 훨씬 지난 나의 해군 군의관 시절은 재미있었던 것 같다. “박정희 목 따라 왔다:”든 김신조 일당이 휴전선을 넘어 청와대 뒷산까지 침범했던 1968 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제가 찌들고 무척 가난했던 고국에서 그 당시에 붙었던 American Dream 을 위해 도미하기 전 필수인 군복무의 의무를 먼저 마치려고 군에 입대했다. 육군에 앞서 해군과 공군은 먼저 지원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육군에 입대하면 규정의 3 년보다 더 늦어져서 제대하는 경우가 많아 3 년 복무를 잘 지키는 해군이나 공군을 선호하였다. 특히 나는 바다의 사나이, 해군의 멋있는 이미지와 제복이 좋았고, 해군 기지가 있는 바닷가 항구에서 생활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해군을 지원하게 되었고, 예과 때 가정교사를 했던 그 학생의 아버지 해병대 고참 대령의 후원으로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진해 해군 통제부 안에 있는 해군의무단에서 김신조 덕분에 새로 생긴 유격훈련과 일주일간의 Hell Week 을포함한 8 주간의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받았다. 중위로 임관하기 전 모든 훈련병들이 진해에서 작은 해군 함정을 타고 통영 앞바다 한산도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제승당에서 신고하고 충무공의 영적 후원을 부탁하고 돌아와 해군 장교로 임관하였다. 하얀 정모와 하얀 정복을 입은 해군 중위로서의 위엄을 힘껏 발휘해 보았다.

해군에 있으면서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먼저 영화나 잡지 책에서 많이 보아 왔던, 바다를 향해하면서 즐기던 낭만적 모습의 마도로스 담배를 피는 것이었다. 파이프 담뱃대에 그 당시에 인기있었던 미국의 Christian Pepper 사의 달콤한 향이 들어있는 London Dock 같은 외제 연초를 넣고 불을 붙여 입에 물고 피는 마도로스 담배의 로망이 있어서 임관하자마자 바로 실행했다. 그 당시에는 양담배를 피우다 발각되면 체포되어 벌금을 물어야 했다. 휴가 와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군복을 입고 마도로스 담뱃대를 입에 물었다. 경찰관이 있어도 국군 장교를 간섭하지 못해 당당하게 담뱃대를 입에 물고시내를 활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파이프 담배는 향기도 있고

구수하기도 해서 피는 사람뿐 아니라 주위사람도 그리 싫어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이프 담배를 오래 피면 그 진이 담뱃대에 쌓여 자주 닦아주고 청소를 해주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구수하던 담배 맛이 아주 쓰기만 해서 게으른 사람에게는 귀찮게 여겨졌다. 또 파이프 담배 연초 값도 만만치 않고 구하기도 쉽지 않아 그냥 중단하게 됐다.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사교 춤을 배우는 것이었다. 마도로스 해군 장교면 국제 신사로 사교 춤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다. 그 당시 진해에는 군항이라는 카바레가 있었는데 거의 모든 손님들이 해군 장교였다. 동료들과 또 선배들과 자연히 군항에서 술자리가 있으면 동석한 아가씨들과 사교 댄스를 하는 것을 보고 춤을 꼭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해 동료 군의관 둘과 함께 허술한 건물의 이층 다락방에서 사교춤을 가르쳐 주는 아줌마한테서 배웠다. 배우는 사람은 우리 동료뿐 만 아니라 아주머니 몇 분도 같이 있었다. 블루스, 왈츠, 트로트, 지루박(지터벅), 차차차와 탱고를 아마도 서너 달에 걸쳐서 배웠다. 교습선생 아줌마와 주로 추면서 배웠는데 조금 익숙해진 후에는 다른 교습생들과 같이 실습하면서 배웠다. 내 친구는 왈츠를 더 잘 추고 나는 지루박을 더 잘 춘다는 아줌마 교습선생의 평이 있었다. 그 후로는 카바레 군항에 가면 기죽지 않고 열심히 춘 기억이 있었다. 이때 배운 사교댄스는 미국에서 살면서 많은 즐거움과 도움을 주었다. 댄스를 전혀 못하는 친구들에게 간단한 기초 스텝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병원파티, 동창회파티, 한인회파티 그리고 성당파티 등 많은 모임에 음악과 춤이 있기 마련이고 그때마다 열심히 춤추고 활약했다. 특히 지역 동창회나 한인회 파티에 처음에는 춤 추는 사람이 없어 우리 부부가 주로 맨 먼저 추면 많은 사람들이 뒤 따라 나와 춤 추곤 해서 나중에는 늙은 제비 부부라고도 불리었다. 유럽 여행 중 이탈리아 Firenze 의 Duomo 광장의 한 실외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 마실 때 흘러나오는 음악이 좋아 흥이 나서 실외에서 음악에 맞춰 우리가 댄스를 추었더니 거기에 있던 많은 커플들이 따라 나와 춤을 춰서 우리가 또 늙은 제비 노릇했다고 웃은 적도 있었다.

다음 해에 함대에 발령이 나서 그 당시 호위함 Frigate 인 대동함(PF-63)의 군의관으로써 복무하게 되었다. 군함이 출항하면 약 4 주간은 해상 근무하게 되는데 주로 동해나 서해 바다에 떠 있으면서 입항하지 못한 채 적의기습이나 간첩활동 따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침입을 막기 위한 경계근무를 했다. 그러다 전투태세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모든 장병이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 가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근무하거나 대기하여야 했다. 함정에 의무실이 따로 배 중앙에 있지만 군의관의 비상대기 위치는 사관실인 장교식당 테이블에 앉아서 비상사태 때 생길 수 있는 부상병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일이다. 장교식당 테이블은 응급상황 시에는 긴급 수술실로 사용되는 곳으로 응급수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테이블 위에는 온 방안을 밝게 비추는 수술실에서 볼 수 있는 큰 수술실 테이블 전등이 있고 캐비닛이나 클로젯에는 약품과 수술용 기구와 준비물들이 항상 비치하고 있다. 한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어떤 군함에서 슛놈 물개를 잡게 되어 정력에 좋다고 소문나서 모두가 탐을 내는 해구신을 사관실 장교식당에 걸어놓고 말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투태세의 비상벨이 울려 모두들 전투태세의 위치로 가 있었고 전투상황이 종료되어 돌아와 보니 말리던 해구신이 없어져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고 했다. 아마도 전투태세 때의 위치가 사관실 장교식당인 군의관이 꿀꺽했다고 소문이 났었다고 한다. 함대 군의관으로 있으면서 사병들의 성적건강을 위해 포경수술도 많이 했다. 그 통에 사병들이 나무 조각과 성냥개비로 만들어 준 군함 모형배를 선물로 많이 받아 진해에 귀항 후 몇 주간의 휴가 때 집으로 가지고 가곤 했다.

항해 중 하루 일과가 끝나고 모든 장병들은 저녁식사를 마치면 각자 휴식시간을 갖는다. 사병들의 침실과 휴게실은 대부분 배 아래에 있고 장교의 침실은 배 위에 있고 사관실 장교식당은 유리창을 통해 시원한 바다가 보이는 갑판위에 있다, 많은 젊은 장교들은 그 당시 유행하던 홀라{Hoola}라는 트럼프 카드 게임을 했고, 나의 소속 함장은 대부분의 병과 고참 해군 장교들과 같이 마작을 좋아해서 저녁 식사를 마치는 대로 함장이 앉아서 식사하던 사관실 테이블 한 끝에 함장을 비롯해 4 명이 모여 마작을 하곤 했다. 당직이 없는 함장과 기관장 그리고 군의관은 항상 그 자리에 참석하고 나머지 한자리는 당직이 없는 장교가 돌아가면서 참석해서 마작을 즐기곤 했다. 마작을 배워본 적이 없는 나는 함장 이하 다른 장교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워서 마작을 했는데 이놈의 마작이 그리 만만하게 볼 게임이 아니었다. 다른 놀이인 민화투나 고스톱 같은 게임은 몇 분 배워서 같이 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이길 수도 있지만 마작은 배우고 익숙해질 때까지 서너 달은 족히 걸려야 했다. 처음

몇 달은 매번 저서 지갑이 텅텅 비면 외상으로 계속했고 오륙 개월 지나서야 겨우 수지 계산이 맞게 되었다.

마작은 참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게임이다. 오래 전에 유행하던 한국 마작은 중국과 일본 마작과 조금 달라 40 패가 적은 오직 104 의 패로 중앙에 벽돌처럼 쌓아두고 각자 13 패를가지고 하는 복잡하고 두뇌를 써야 하는 게임이다. 모든 게임에는 족보가 있는데 마작은 족보의 종류가 많아 익숙해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더 힘들고, 더 재미있는 것 같다. 누군가 말했다. 서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것은 골프이고, 앉아서 하는 것 중 제일 재미있는 것은 마작이고, 누워서 하는 것 중 제일 재미있는 것은 거시기라고. 중국 영화를 보면 가족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가족끼리 마작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다. 일본에서도 바둑클럽처럼 마작클럽이 있어 아주 건전하게 마작을 즐기고 있고 일본에서는 마작 게임을 중계해주는 TV 방송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아주 나쁘게 들어서 마작이라고 하면 큰 도박으로 알고 손 가래를 치기도 하고 어떤 어머니는 자기 남편이 마작에 빠져 시간과 재산을 잃어서 자식에게 마작은 절대 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했다. 마작은 너무 재미있어서 밤새워 하는 일이 흔했다. 그러나 절제와 도박성을 띠지 않고 흥미 본의로 하면 더 이상 재미있는 게임이 없다. 더군다나 노년에는 두뇌를 열심히 써서 치매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일석이조가 된다.

이 마작 게임은 Buffalo, NY 에서 practice 할 때에도 계속했다. 그 당시 버팔로에는 서울의대 동창들이 많이 있었다. 나를 포함한 동창 6 명이 한 달에 한 번 모여 각자 \$100 을 투자하여 모은 자금으로 stock 을 사던 Investment Club 이 있었다.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합의가 되면 주식을 사고 팔곤 했다. 그리고는 맥주 마시면서 환담했지만 나중에는 환담보다 마작게임을 했다. 전혀 마작을 해보지 못한 세 동문도 배워서 나중에는 즐기고 좋아했다. 한 선배는 동창회 모임에서 Dr. 주가 입은 T-shirt 는 자기가 사 준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장 인상에 남았던 일은 그 동안 투자해서 벌었던 주식을 팔아서 6 부부가 함께 Caribbean Cruise 를 갔던 일이었다. 항해 중에는 2 팀으로 3 명씩 게임 테이블에 앉아 3 인조 마작을 즐겼다. 어떤 항구에서는 상륙해서 돌아다니며 관광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작 할 때도 있었다. 돌아올 때에 한산한 Caribbean 섬공항에서 비행기 출발이 너무 오래

자연되어서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공항 바닥에 앉아 했던 일도 있었다. 여러 해 동안 마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직장을 옮기거나 은퇴하여 다른 도시로 이주하여 마작 멤버가 모자라게 되어 열심히 다른 동문을 꼬셔서 가르치고 해서 계속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늦게 새로 참가한 동문들 모두 다 마작을 좋아했고 재미있어 했다.



나도 은퇴해서 버지니아로 이주한 후에도 마작 할 수 있는 친구나 동문을 찾아보았다. 겨우 찾아 만든 4 인조 마작이 COVID 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다시 모여 즐겼지만 병환과 사망으로 중단되었다. 하지만 다시 두 선배님을 모시고 무에서 유로 창조하듯이 새롭게 시작해서 아직도 마작을 즐기고 있다. 90 에 가까운 나이에 쉽게 배울 수 없는 마작을 배워 즐기는 두 분께 경의와 감탄을 느끼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 일 주일에 한 번씩 이곳 DC

Metropolitan area- DMV(DC, Maryland, Virginia)에 거주하는 많은 의대 동기들과 two foursomes 로 골프 치고, 그리고 주로 그 다음 날에는 동문 4 명이 mahjong group 의 이름으로 예약해둔 Public Library 의 작고 아담한 방에 오후 1 시에 모여 일 주일에 한 번씩 마작을 하고 있다. County 에 속해 있는 공공시설인 도서관의 작은 방에는 4 각형의 작은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있고 시원하게 에어컨도 뽕뽕하게 나오는 방에서 마작을 한다는 사실이 믿겨 지지 않는다. 초록색 담요를 테이블 위에 깔고 그 위에서 마작을 4 시간 즐기고 난 다음에 근처 식당에서 Pizza 를 먹으며 환담하며 지내고 있으니 더 이상 좋은 팔자를 가진 백수 은퇴자는 많지 않을 것 같다. 더군다나 부인들도 저녁식사를 준비 안 해도 되고 잔소리도 듣지 않는다고 무척 좋아한다. 해군 함정에서 배운 마작이 아직도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치매 방지의 두뇌운동을 하게 할 줄은 몰랐다.

함대 근무를 마치고 그 당시 서울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 의무감실에서 근무했다. 빨간 해병대 명찰을 달면 용감해진다는 그 빨간 명찰을 달고 출근했다. 퇴근 후에는 이태원에 있는 어느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진료과목으로 내세운 Clinic 에서 moonlight 를 했다. 낙태수술을 많이 하던 의원으로 저녁에 찾아오는 수술 환자는 약을 먼저 바른 다음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내가 아까정기 (Mercurochrome)를 Cervix 에 발라주고 다음 날 와서 원장의사에게 수술을 받게 했다. 어떤 때는 낙태수술 중에 마취된 상태에서 영어로 말하는 여인을 본적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사층에 있는 병실 하나를 나의 숙소로 지내고 있었다. 가끔 더운 여름 날 밤 옥상에 올라가 바람을 쐬면서 주위를 둘러보곤 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어느 집 마당 수돗물 가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 멀리 있어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 당시 내 눈에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지금 생각하니 다윗왕이 왕궁의 옥상에서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탐내어서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한 성경구절이 생각나기도 했다.

이렇듯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해군본부 의무감실에서 온 전화 한통을 받았다. 베트남에 있는 해군 백구부대 의무실장으로 가지 않겠냐고. 나는 고심을 했다. 해군 백구부대는 사이공에 있어서 주 월 파병부대 즉 육군의 맹호부대, 백마부대 및 비둘기 공병부대와 해병대의 청룡부대의 장병 수송과 군수물자들의 수송을 담당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다. 지금은 호치민시 라고 부르는 사이공은 항구가 아니지만 짧은 사이공강을 통해 남중국해로 통해 있어 우리 해군 함정들도 사이공 부두에 정박하고 있었다. 백구부대의무실장은 백구부대 본부와 부두에 정박되어 있는 군함의 장병을 관리하는 군의관으로 전투와는 관계없고 실제로 위험한 군업무는 없었다. 처음으로 외국 땅을 밟고 생활하고 또 전투수당도 미국정부로 부터 받기에 고심 끝에 월남 파병 근무를 결심하게 되었다. 사이공으로 가는 날 여의도 공군 비행장에서 같이 베트남의 백구부대로 발령 난 군목 대위와 함께 미군 수송기에 탔다. 이 수송기는 필리핀의 Subic Bay 에 있는 Clark 비행장에서 하루 밤을 자고 그 다음 날 습기차고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찬 무더운 베트남에 도착했다. 사이공은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때를 지어 다니며 도로는 물론 인도에까지 올라와 주차하고 무척 시끄러웠다. 길에는 긴 옷이라는 뜻을 가진 아오자이, 특히 흰 색과 검은 색의 아오자이를 입은 날씬하고 가냘픈 여인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해군 함정 위 군목과 함께, 오른 쪽이 필자)



(사이공강을 배경으로 하복 정복을 입고 오른 쪽이 필자)

드디어 사이공의 해군 백구부대에 신고하고 숙소를 배정받았다. 내가 배정받은 숙소는 당시 베트남 대통령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호텔을 미군이 인계 받아 장교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는 운이 좋아 처음부터 두 사람이 쓰는 방을 배정받았다. Roommate 인 미 육군 중위는 사이공에 있는 베트남 부대의 고문관으로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리고 가끔

주말에만 방에 나타났다. 평일에는 퇴근 후 사복으로 갈아 입고 애인 집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와서 샤워하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출근하곤 했다. 말 몇 마디 해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장교 숙소 호텔에는 대부분이 미 육군 장교들이고 그리고 몇몇의 오스트레일리아 장교들과 우리 해군 장교들이었다. 식사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장교 숙소호텔의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식사를 제공했다. 점심에는 12 시경에 jeep 차로 호텔식당에서 점심 먹고 숙소에 가서 낮잠자고 2 시에 다시 jeep 차를 타고 출근하곤 했다. 이렇게 베트남 남부에 있는 사이공에서는 Siesta 를 철저히 지켜서 열대지방의 더위를 식히곤 했고 우기인 여름 철에는 하루에 한 번씩 쏟아지는 스콜이라 부르는 소낙비가 쏟아져 조금 시원해지기도 했다.

이 호텔식당에서 참으로 뜻밖의 친구를 만났다. 그는 나의 의대 동기로 당시 백마부대 사단본부의 의무실에 있으면서 크리스마스 때 사이공에 휴가 와서 저녁 먹으러 이 호텔식당에 왔다가 만나게 되었다. 반갑게 만난 친구에게 사이공 구경시켜 주려고 그 당시 교통수단이었던 삼륜차를 개조해서 만든 딸딸이에 타고 가던 중 나의 왼손이 무엇인가에 걸려 나도 모르게 좌석에서 일어서게 되었을 때 나의 왼 손목에 있던 손목 시계는 옆에서 바짝 붙어서 오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있던 베트남인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그 외에도 주 월 사령부에 근무하던 동기와도 여러 번 만났고, 베트남의 휴양도시 봉타우에 있던 비둘기부대 군의관으로 있던 동기를 찾아가서 만났던 일도 있었다.

z 미군중위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roommate 가 왔다. Dennis A. Rondinelli 라는 매우 성실하고 착실한 미 육군 대위였다. 그는 Cornell University 에서 Public Administration 연구로 Ph. D 를 받고 ROTC 를 통해 미 육군에 입대한 이탈리아 계통의 백인이었다. 나보다 한 살 위고 키는 나보다 조금 작았다. 여러 달을 Roommate 로 같이 지내면서 매우 가까워졌다. 하루는 내가 감기가 걸려 콧물 흘리고 기침하면서 고생하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PX 에서 사온 담배 Marlboro 를 좋아해서 10 갑이 들어있는 보루로 사서 옷장 설함에 두어 놓고 피우고 있었다. 그는 내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안되어 보였는지 그가 나를 설득했다. "환자가 너처럼 감기 걸려 기침하면서 담배를 태우면 네가 의사로서 뭐라고 환자에게 조언하겠냐?" 라고 물으면서, 자기가 고향에 있을 때 자기 여자

친구를 담배 끊게 도와주었다고 하고 내가 담배 끊을 결심을 하면 돕겠다고 했다. 나도 그 당시 감기 때문에 담배가 맛없고 쓰기만 해서 금연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금연하겠다고 말하니 몇 번이나 다짐하고는 내가 피던 담뱃갑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그 담뱃갑을 손으로 뭉개서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러고는 나머지 안 핀 담뱃갑을 달라고 해서 옷장 설함에 있던 것을 주었더니 이 담뱃갑은 새 것이라 뭉개버릴 수는 없고 자기가 보관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한국 장교의 위신과 국제적인 체면 때문에 금연하게 되었다. 더욱이 양담배 속에서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아쉬움도 없었다. 그래서 귀국 후 만난 나의 아내는 담배피는 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Dennis Rondinelli 와 함께)

나의 new roommate 는 부지런하고 온순하고 성실했으며, 또 성격이 나와 비슷해서 인지 나랑 잘 어울렸다. 그와는 주말이 되면 같이 외출하여 식사도 함께 했다. 그 때 처음으로 Pizza 를 먹었고 처음 맛본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 때 안현필이 쓴 영어교재에 Pizza 를 먹었다는 글을 보았으나 그 당시에 한국에 아직 보급되지 않았는지 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었다. 그 다음 주말에는 한국사람이 하는 한국식당으로 가서 한국 음식을 먹기도 했다. 베트남 음식도 여러 번 먹었는데 요즈음 가끔 먹는 베트남 쌀국수인

Pho 를 먹어본 기억은 없었다. 가끔 시내에 있는 Bar 에 가서 술도 마시고 시장 구경도 하고 또 관광도 같이 하곤 했다. 며칠 휴가를 내서 사이공에서 그리 멀지 않은 휴양지이며 한국 육군의 비둘기부대가 있는 봉타우로 관광도 하고 또 대학동기 군의관 친구도 만날 겸 같이 놀러 갔었다. 이렇게 같이 Roommate 로 재미있게 지내다 보니 정이 들고 마치 국적과 인종이 다른 형제처럼 느껴져 서로 Brother 라고 부르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한국이름을 지어주었다. 그의 이름 Dennis Rondinelli 와 발음이 비슷한 노대수라고 지었다. 그가 휴가로 Hong Kong 을 갔다 왔는데 부탁할 것 없냐고 해서 나는 알지 못하는 미래의 나의 신부의 결혼반지를 부탁했다. 그 당시 결혼반지로 Diamond 반지가 유행하기 시작하여 나의 약지보다는 작고 소지보다는 큰 사이즈로 부탁했더니 사 와서 훗날 결혼반지로 사용했다. 참으로 고마운 친구다.

다음 해 여름에 나는 귀국하게 되었는데 귀국하는 장교들은 나무로 짠 큰 Box 에 짐을 싣고 Box 와 함께 우리 해군 군함을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계급에 따라 Box 의 수와 크기가 달랐다. 나는 친구 노대수를 통해 미군들이 이용하는 Catalog 로 주문하여 여러 Music System 을 구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유행했던 Akai 녹음기와 앰프, 일제 사진기와 TV 를 쉽게 구해 Box 를 채웠고 빈 자리는 화장실 휴지로 가득 채워 손상 없이 가져올 수 있었다. 이렇게 가져온 Music System 과 카메라는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오랫동안 사용했었다.

나의 친구 노대수도 나 보다 하루 전 날 미국으로 귀국하여 전역하게 되었다. 전역하면 바로 Milwaukee, WI 에있는 University of Wisconsin 의 강사로 가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다. 나도 귀국해서 전역하면 미국에 Intern 과 Resident 의 수료과정을 받을 나의 계획을 알고 그가 협조해 주기로 했다. 그는 Milwaukee 에 있으면서 Intern 을 모집하는 모든 Milwaukee 의 병원의 안내서를 보내주었다. 그 도시에는 인턴을 모집하는 병원이 많지 않아 인근 대도시인 Chicago 에 있는 인턴 모집 병원의 책자들을 보내주었다. 나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Intern matching program 에서 Chicago 에 있는 병원으로 결정이 되어 계약서에 사인해서 보냈지만 비자가 늦게 나와 그 해에 미국에 들어올 수 없었다. 비자가 늦게 나온 사유는 말 한 마디에 기인되었다. 미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을 때 외국에 나갔다 온 사실이 있으면 신원조사를 추가로 해서 비자가 늦게 나온다는 말을 들었지만 인터뷰에서

외국에 갔다 온 일이 있었느냐의 질문에 나도 모르게 "Yes" 라고 답해서 신원조회를 추가로 하는 바람에 다음 해인 1973 년 6 월 중순에 Chicago 에 도착했다.

일 년 전에 나의 친구 노대수는 Nashville, TN 에 있는 Vanderbilt University 로 직장을 옮겼지만, 아내와 함께 Chicago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마중나와 있었다. 너무나 반갑고 놀랐고 무척 감사했다. 다음 날 그의 도움으로 여러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조용한 동네에 아파트를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참으로 고마운 나의 친구이며, 나의 American brother 였다. 그와의 인연은 계속되었다. 인턴 때 첫 휴가로 Vanderbilt University 가 있는 Nashville, TN 로 차를 몰고 가 3 박 4 일 휴가를 그의 집에서 보냈다.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애인도 없었다. 내 아내가 김밥을 만들어 싸서 주워 관광할 때 공원에서 먹곤 했다. 그는 나의 아내가 만든 김밥을 무척 좋아해서 김밥 싸는 법을 배워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혼자서 김밥을 만들어 대학에서 점심으로 먹곤 했다고 했다. 그 다음 해에 그는 Honolulu, HI 에 있는 Hawaii University 의 East West Center 에서 Post-Doctorial Fellowship 을 했다. 그래서 고향인 Trenton, NJ 로 갈 때는 Chicago 에 들러서 우리 집에서 하루 쉬고 가고 또 하와이로 돌아갈 때도 우리 집에 들렀다 가곤 했다. 원래 부터 중국 음식을 좋아했는데 베트남에서 또 우리 집에서 한식을 먹더니 한국 음식을 매우 좋아했다.

그리고 한국과 한국여인에게도 관심이 많아 한국여인을 소개해 주었다. 첫 번째 여인은 선배의 누이동생인데 만나보더니 너무 Americanized 되어서 깨졌고, 두 번째 여인은 내가 근무하던 병원의 한인 간호사로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한 후 데이트 나갔는데 그후 일이 잘되어 서로연락을 하고 만나고 사랑하게 되었다. Fellowship 을 끝내고 그는 Syracuse University 에 교수로 임명되어 Syracuse, NY 으로 옮겼다. 나도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에서 Nuclear Medicine Resident 로 하게 되어 노대수와 멀지 않은 같은 New York 주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는 데이트하던 그녀와 Chicago 에서 결혼하게 되어 나는 Best Man 으로서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들은 Buffalo 에서 그리 멀지 않은 Syracuse 에서 살게 되어 우리는 여러 번 왕래하고 휴가도 같이 가곤 했다. 그들에게도 두 딸이 태어났는데 첫 딸은 우리 첫 딸 보다 한 달 늦게 태어나고 둘째 딸은 우리 둘째 딸과 생년 월일도 똑 같다. 참으로 우연 치고는 너무 이상하고 신기했다. 어른은 어른끼리 애들은 애들끼리 친구가 되어

재미있게 지냈다. 또 나의 한 작은 처남은 그의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하게 되고 나중에 Rochester University 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또 United Nations 으로부터 위촉된 임무로 해외 여러 나라를 방문했는데, 그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 나의 처가 집 식구로부터 많은 우대를 받은 적도 있었다.

한 10 년이 지난 후 그는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에 교수로 임명되어 North Carolina 로 이주하는 바람에 만나는 것이 뜸해졌으나 그 통에 장거리 여행을 즐기기도 했다. 늦은 가을에는 북쪽 Buffalo 에서는 느끼지 못한 따뜻한 날씨에 같이 골프를 치면서 휴가를 즐기기도 했다. 그의 아내는 우리가 Mrs. 노 라고 불렀는데 그녀는 간호사직을 퇴직하고는 취미로 골프를 열심히 쳐서 무척 잘 쳤다.

내 친구 노대수는 자기의 전공분야에 두각을 나타내어 열 권 이상의 전공 서적을 출간했고, 인근 Durham 에 있는 Duke University 에서도 교수직을 받고 또 미국대표로서 Expert Committee on Public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Nations 에서 봉사하기도 했다. 그는 Award 도 여러 개 받고, 훈장도 National Defense Service Medal, Vietnam Service Medal, Bronze Star Medal 등 여러 개 받았다. 그러나 그는 운명의 신을 피하지 못해 2007 년 3 월에 64 세의 젊은 나이로 집에서 heart attack 로 쓸어졌다.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형제 같은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그 후 매년 늦은 가을에 찾아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아내를 위로하면서 같이 골프를 즐겼다. 골프도시로 유명한 근처의 Pinehurst, NC 로 놀러 가기도 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녀가 한 고등학교 골프팀을 이끌던 golf instructor 를 골프장에서 만나 사귀더니 결혼함으로써 우리의 발길은 자연히 멈추어 졌다.

나도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주 대위’가 되어 돌아온 후 근무지가 진해인 덕분에 멀지 않은 부산 여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지금은 은퇴해서 Washington, DC 근교인 Northern Virginia 에서 둥지를 틀고 살고 있는데, 부산의 경남여고를 나온 아내 동창을 통해 서울 의대를 졸업한 나의 동문 네 분을 같이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동문 네 분은 모두 해군 출신이어서 더욱 반가웠다. 또 부인들은 모두 이화여대 출신이어서 SKEN (Seoul 의대, Kyungnam 여고, Ewha 여대, Navy)이라는 멋있고 흥미로운 이름의 모임을 갖게 되어 지금도 열심히 모두 모여서 식사와 담소를 하고 또 동문끼리 모여 마작도 하고 가끔 골프도 같이

치게 되었다. 더욱이 한국 정부에서 월남참전 보상금으로 매년 일 년치 골프장 이용요금 만큼 보내주니 더욱 감사할 뿐이다.

이렇듯 나의 해군 군의관 시절은 단순히 병역의무만 하는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전역 후 나의 일생에 큰 변화와 기쁨을 마련해 주었고 되돌아 생각해 보면 나의 해군 군의관 시절은 즐거웠고 재미있었다.